

실종자 대부분 청년 실업자...좌절과 상실의 '청춘 묵시록'

그들은 왜 캄보디아로 갔나

광주·전남에서 캄보디아로 출국한 청년들이 실종되는 사례가 잇따르는 가운데, 취업난과 자영업 실패, 부채 부담 등을 겪다 '고수익 해외 일자리'에 현혹돼 캄보디아행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16일 여수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4일 태국을 거쳐 캄보디아로 향한 A(38)씨는 청년 창업 지원 사업에 참여했다가 폐업해 생활고에 시달린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농산물 가공 및 납품, 빵 판매 등 사업을 했다가 3년여만에 폐업했으며, 실업자가 돼 적지 않은 빚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최근 실종됐다가 지난 15일 가족과도 영상통화를 해 안전

취업난·자영업 실패로 빚에 허덕여수 30대 창업 참여했다가 폐업광주 30대 미취업에 경제난 겪어광주·전남 청년고용률 최저 수준생계 막막 속 고수익 유혹 넘어가

여부를 확인했으며, 현재 캄보디아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는 말하지 않았다.

지난 1월 캄보디아로 출국했다가 실종된 광산구 출신 30대 B씨도 자영업을 해 보려다 폐업해 상당

기간 취업을 하지 못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광주 시 서구에 살던 30대 C씨도 식당 일을 하다 그만두고 취업하지 못해 가족에게 수차례 10~20만원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하는 등 경제난을 겪다 캄보디아로 출국, 실종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이 추적 중인 캄보디아 실종 광주·전남 지역민들은 모두 20~30대 청년층이자 실직자 또는 무직자로 사업 실패나 취업난 등을 겪었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광주·전남의 청년층 취업률은 하향세다. 통계청에 따르면 광주 청년층 고용률은 2020년 39.6%, 2021년 37.3%, 2022년 38.8%, 2023년 38.9%, 2024년 38.1%로 하락했다. 전남의 경우 2020년 37.9%, 2021년 37.2%, 2022년 40.1%, 2023년

39.4%, 2024년 41.2%로 소폭 상승했지만 여전히 전국 평균(46.1%)을 넘지 못하고 있다.

이는 광주·전남 지역 내 정규직, 대기업으로 대표되는 1차 노동시장과 비정규직과 중소기업으로 대표되는 2차 노동시장 사이 격차가 크고, 고소득 일자리가 부족하고 고용여건이 열악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취업을 포기하고 사업에 뛰어들어 청년들도 광주·전남에서는 좀처럼 성공하지 못하고 있는 모양새다. 국제청 국제통계포털(TASIS)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폐업 사업자 수는 개인과 법인을 포함해 총 100만 8282명으로, 전년(98만 6487명) 대비 2만 1795명 늘었다. 같은 기간 광주와 전남 폐업 사업자 수는 각각 2만 6062명, 2만 9542명으로 총 5만

5604명을 기록했다.

국제청 자료상 지난 2014~2023년 사이 광주의 폐업률은 11.8%로, 인천(12.1%)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폐업률이 높은 지역으로 꼽혔다.

청년들의 빚도 적지 않다. 2024년 '가계금융복지조사'를 보면 지난해 3월 말 기준 39세 이하 가구는 자산 대비 부채비율이 29.8%, 저축액 대비 금융부채 비율은 132.2%로 다른 나이에 비해 가장 빚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해외 고수익 알바에 현혹되는 이들은 대다수 경제적으로 힘든 사람들이다. 더구나 오랫동안 취업이 안 되면 '한탕주의'처럼 고수익 유혹에 더 빠져들기 쉽게 되기도 한다"고 말했다.

/서민경 기자 minky@kwangju.co.kr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성과 공유해요 16일 광주시 북구 문흥동 솔로몬 로파크 저서티스홀에서 '발굴하고 배우고 전파하는'이란 주제로 열린 2025년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 성과공유회에 참가한 주민과 기관단체 회원들이 다양한 체험부스를 이용하고 있다.

/나명주기자mjna@kwangju.co.kr

국·공립대 조교 고용 불안 시달린다

교육공무원 불구 법과 시행령 불일치로 해마다 재임용 심사

국·공립대학에서 상근직으로 일하는 조교(대학원생 포함)는 정년이 보장된 교육공무원이면서도, 법과 시행령의 불일치로 해마다 재임용 심사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전남 대학원생들이 학생도 아니고 노동자도 아닌 모호한 사회적 지위 때문에 노동자로서 법적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것(광주일보 10월 16일 6면)과 유사한 상황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더불어민주당 고민정(서울 광진구을) 의

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광주·전남 지역 5개 국·공립대의 조교는 424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평균 조교 총원율은 99.7%로 집계됐다.

하지만 일부 대학은 조교의 재임용 횟수를 제한하고 있어 신규 채용 때 다시 지원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교는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만 62세의 정년이 보장되는 교육공무원에 해당되는데도, 교육공무원임용령 제5조의2(대학교원의 계약제 임용 등)

4항에서는 1년마다 재임용 심사를 받아야 한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목포해양대에서는 최근 5년간 조교재임용탈락율이 2.2%를 기록했으며, 이는 대구교대(2.5%), 전주교대(2.4%), 청주교대(2.3%)에 이어 전국에서 네 번째로 높은 수치였다.

또 지역 국·공립대 중 3곳(순천대, 목포대, 광주교대)은 재임용 횟수(2~5회)를 4~5회로 제한하고 있으며, 정해진 횟수를 넘긴 조교의 경우 신규 채용에 다시 응하도록 하고 있었다. 사실상 정년은커녕 기간제 계약직이나 다름없는 상황인 것이다.

고민정 의원은 "국공립대 조교의 고용안정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고등교육 연구와 학사 지원이 안정적으로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민경 기자 minky@kwangju.co.kr

경찰, 올 캄보디아 공조 요청 34건...회신은 8건

올 한 해 경찰이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을 통해 캄보디아에 요청한 국제공조가 30건이 넘지만 극히 일부만 회신이 온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은 1월부터 10월 15일까지 캄보디아에 34건의 국제공조를 요청했다.

혐의별로 보면 보이스피싱 등 경제 범죄가 26건으로 가장 많았고, 약취유인 4건, 성범죄 2건, 폭행·협박·상해 1건, 강도·절도 1건이었다.

캄보디아 측의 회신은 8건(23.5%)에 그쳤다.

보이스피싱이 6건, 약취 유인이 2건이다.

경찰이 가장 많이 국제 공조를 요청한 곳은 중국으로 85건이었다.

보이스피싱 등 경제 범죄가 45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이 '기타'로 26건이었다. 경찰은 범죄단체 가입·활동 혐의가 경찰 분류 통계에 잡히지 않아 '기타'에 속한다고 설명했다.

캄보디아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베트남에 대한 공조 요청은 62건이었으며, 다른 접경국 태국은 11건이었다. 캄보디아를 제외한 다른 국가들의 회신율은 경찰이 집계하지 않고 있다. /연합뉴스

광주·전남 징계 경찰관 최근 5년간 201명

광주·전남에서 최근 5년 동안 징계를 받은 경찰관이 201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전북 익산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21년~2025년 6월)간 광주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은 총 52명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2021년 12명, 2022년 8명, 2023년 15명, 2024년 14명, 2025년 6월까지 3명 등이었다.

전남경찰청에서도 2021년 25명, 2022년 57명, 2023년 22명, 2024년 28명, 2025년 6월 17명 등 5년 사이 149명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비위 감시를 위해 설치된 각 사도 경찰청

의 시민감찰위원회는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고 2개월마다 정기 회의를 열도록 규정됐지만 광주·전남 경찰 내 실제 운영은 이를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경찰청은 2021년 2회 이후 매년 1회만 개최했고 올해는 아직 회의를 열리지 않았다. 전남경찰청 역시 2021년 1회, 2022년 2회, 2023년에는 한 차례도 개최하지 않았으며 지난해 2회 이후 올해 아직 열리지 않았다.

한 의원은 "경찰이 영구적이고 구속력 있는 고강도 반부패 대책을 내놓지 못한다면 국민 신뢰는 더욱 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서민경 기자 minky@kwangju.co.kr

관용차 사적 사용 혐의 여수시 비서실장 벌금형 약식기소

여수시청 비서실장(별정 6급)이 관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벌금형 약식기소됐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최근 여수시 비서실장 A씨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12일 오전 8시께 여수시 선소대교 인근 도로에서 개인 용무를 보기 위해 관용차를 사적으로 몰다 교통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배차 신청을 하지 않은 채 차량을 몰고 있었으며, 사고 이후 뒤늦게 배차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 차량은 반파돼 폐차됐다.

A씨가 법원의 약식 명령에 불복하거나, 법원이 직권으로 재판에 회부할 시 정식재판이 열린다.

여수시는 수사 또는 재판 결과를 토대로 A씨에 대해 징계 조치할 방침이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한 사람의 보험비로 전 국민의 경제부담

보험사기 알선·유인·광고 행위는 범죄입니다

24년 8월 14일부터
보험사기 행위를 알선·유인·권유 또는 광고하는 행위 시
최고 징역 10년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

【병원 입원 알바】
고수익 보장
보험 가입 필수
http://X&3@%M%T

알바 댔는데 해볼래?

보험사기 알선·유인·광고 행위 STOP

보험사기 알선·유인·광고 행위 신고하세요

신고 방법

금융감독원 콜센터
국번없이 1332 ▶ 4번 ▶ 4번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www.fss.or.kr ▶ 보험사기 신고

각 보험회사 대표번호

각 보험회사 홈페이지
보험범죄신고센터

알선이란? 보험사기행위를 실행하려는 자 사이에서 이를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

유인이란?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보험사기행위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경찰청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

금융감독원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국민건강보험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생명보험협회
Korea Life Insurance Association

소해보험협회
Korea Fire Insurance Association

IGFA 보험GA협회
보험사기방지지원단